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지표 호조, 50bp 금리인하 호재 반영 등으로 상승

미국 증시 리뷰

19일(목) 미국 증시는 연준의 50bp 빅컷 단행 이후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 등이 경기침체 우려를 완화시켰고, 이에 투자심리 개선되며 대형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한 결과 3대지수는 상승 마감(다우 +1.26%, S&P500 +1.70%, 나스닥 +2.51%)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9월 8일~14일)는 계절 조정 기준 21.9만 명을 기록하며 컨센서스(23.0만 명)와 전주 수치(23.1만 명)을 모두 하회. 한편,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182.9만 건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1.4만 건 감소하며 3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이는 최근까지 두드러지게 제기되었던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 시켜주는 지표.

다만, 컨퍼런스보드에서 발표한 8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LEI)는 전월 대비 0.2% 하락한 100.2를 기록, 6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를 지속. 집계측에 따르면, 최근의 경기선행지수 하락세는 향후 미국 경기 성장에 역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언급했으며,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에 따른 부채부담이 수요를 둔화시켜 올 하반기 GDP에도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임.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서 발표한 8월 기준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2.5% 감소한 연율 386만 채를 기록. 최근 미국 기준주택판매 지표는 7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8월 들어서 재차 감소세로 전환. 8월 기준주택 중간가격은 전년 대비 3.1% 상승한 41.6만 달러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상승세 기록중. 집계측에 따르면, 금번 주택판매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모기지금리 하락 및 재고 증가세를 감안하면 향후 주택판매는 증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언급.

マイクロソフト(+1.83%), 알파벳(+1.46%), 메타(+3.93%) 엔비디아(+3.97%) 등 M7 종목 동반 강세보이며 대형기술주 랠리가 증시 상승을 견인. 애플(+3.71%)은 연준의 금리 인하로 경제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아이폰 16 판매 기대감이 부각된 결과 상승 마감. 특히, 테슬라(+7.36%) 최근 높은 금리로 인해 타격을 입었던 전기차 판매 실적이 연준의 빅컷 이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된 결과 큰 폭의 상승 시현. 한편 기술주 외에도 가치주 중심의 다우지수 또한 4,2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9월 FOMC 직후 변동성 장세를 연출하며 하락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는 이제 50bp 금리인하를 긍정적인 재료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 가운데, CME Fed Watch 상 연말까지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금리인하 폭이 75bp로 연준의 9월 점도표에서 제시했던 수준에 비해 25bp 높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 시장 참여자들간 시장과 연준의 간극이 여전히 벌어져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시장이 반영하는 연말 기준 금리 상단 4.25% vs 연준의 점도표 상 연말 기준금리 상단 4.5%).

또 10년물 금리가 9월 FOMC 전 3.6% 중반대에서 3.71%대까지 반등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주식시장과 달리 채권시장에서는 향후 연말 까지 인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처럼 연준 vs 시장, 주식시장 vs 채권시장 간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통정리는 향후 발표되는 고용, ISM 제조업 PMI, 소매판매 등 매번 회의 전 발표되는 주요 실물 경제 지표의 결과에 달려 있을 전망.

주요 실물 경제 지표는 10월 들어서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전까지는 지표 공백기에 들어갈 전망. 하지만 그 전에 매크로 상 증시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벤트가 존재하며, 이는 금일 아시아 증시 발표 예정인 BOJ의 9월 통화정책회의가 해당. 지난 7월 중순 이후~8월 초까지 증시 급락의 단초를 제공했던 요인 중에는 7월 BOJ의 매파적인 금리인상(15bp 인상, 시장 컨센트 10bp 인상)에 따른 엔화 초강세 및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기 때문.

이번 회의에서는 BOJ의 금리 동결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으며, 관건은 오후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BOJ 총재가 얼마만큼의 매파적인 입장 을 전달할 지에 달려 있음. 예상보다 매파 입장은 취한다면, “엔화 강세 → 엔-캐리 청산 → 증시 급락”의 패턴이 재현될 수 있을 것. 하지만, 지난 8월 초 낫케이 10%대 폭락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들은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급격한 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을 것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주식시장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의 매파 입장은 취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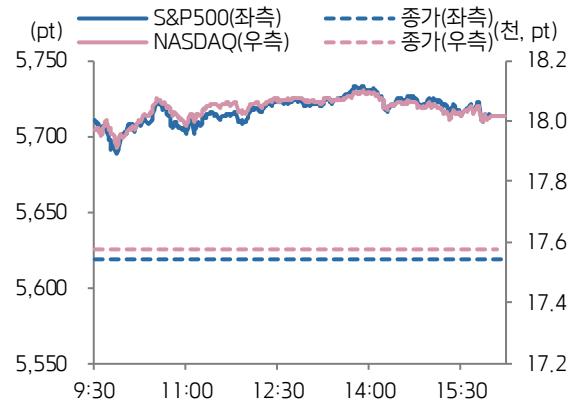
현재 매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에서도 엔화 강세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음. 일단 지난 7월 5일 -18.4만 계약을 저점으로 반등하면서 9월 13일 +5.5만계약을 기록하는 등 엔화 강세에 대한 투기적 베팅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지난 7월 당시 엔달러 환율이 160엔 초반에서 140엔 초반까지 급락했던 것에 비해 8월 초~9월 현재까지 엔달러 환율이

140~148엔 대에서 레인지 장세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투기적 자금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따라서, BOJ 회의 직후 엔/달러 환율 변동성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지만, 증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을 전망.

전일 국내 증시에서는 외사 IB들의 반도체 입종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로 주요 반도체주들이 동반 급락세를 보인 반면, 금리인하 수혜주로 인식되는 바이오주들이 동반 급등세를 보이는 양극화 장세를 연출했던 상황(코스피 +0.2%, 코스닥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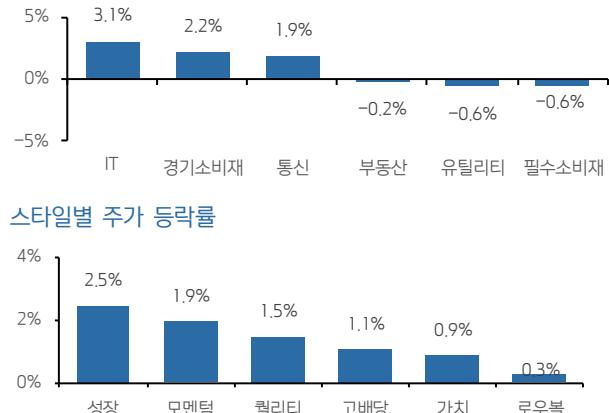
업황 피크아웃 논란은 현재 진행 형이나, 금일 국내 반도체주는 미국 증시에서의 엔비디아(+4.0%), 마이크론(+2.2%), AMD(+5.7%) 등 반도체주 강세 및 전일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 시도할 전망.. 반면, 바이오, 금융, 자동차 등 전일 급등한 업종들은 BOJ 정책 회의 경계감과 맞물림에 따라, 단기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이를 감안 시, 금일 전반적인 국내 증시는 상기 주력 업종들 간 단기 순환매,, BOJ 회의 경계 심리 등으로 지수 상단이 제한되는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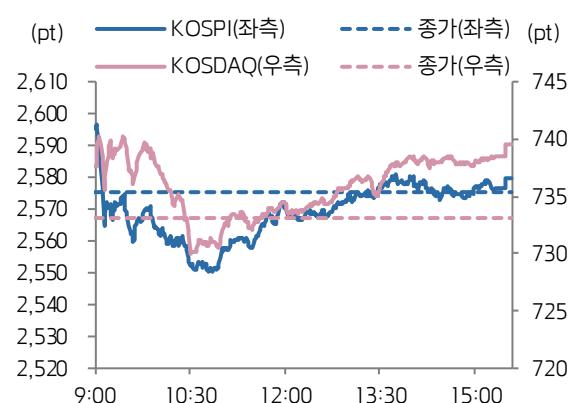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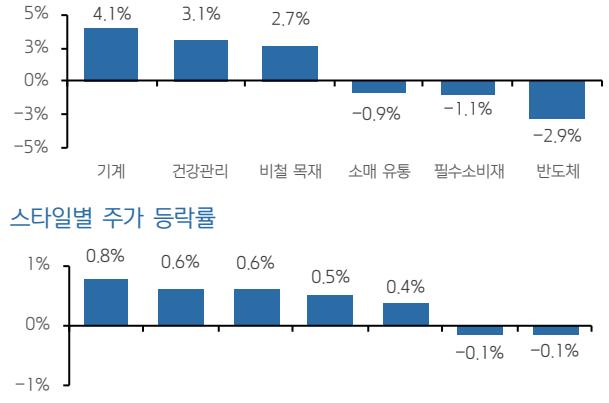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28.87	+3.71%	+19.33%	GM	48.62	-0.08%	+36.46%
마이크로소프트	438.69	+1.83%	+17.3%	일라이릴리	915.04	+1.11%	+57.74%
알파벳	162.14	+1.46%	+16.36%	월마트	78.04	-1.25%	+49.95%
메타	559.10	+3.93%	+58.43%	JP모건	210.48	+1.42%	+25.92%
아마존	189.87	+1.85%	+24.96%	엑손모빌	116.00	+1.24%	+19%
테슬라	243.92	+7.36%	-1.84%	세브론	144.99	+0.72%	+0.37%
엔비디아	117.87	+3.97%	+138.07%	제너럴일렉트릭	78.04	-1.3%	+50%
브로드컴	167.42	+3.9%	+51.6%	캐터필러	373.31	+5.12%	+27.82%
AMD	156.74	+5.7%	+6.33%	보잉	154.59	-0.34%	-40.69%
마이크론	89.25	+2.18%	+4.77%	넥스트에라	82.29	-2.4%	+38.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80.80	+0.21%	-2.8%	USD/KRW	1,329.20	-0.03%	+3.2%
코스피200	343.28	-0.12%	-4.11%	달러 지수	100.64	+0.04%	-0.69%
코스닥	739.51	+0.86%	-14.66%	EUR/USD	1.12	+0.39%	+1.11%
코스닥150	1,242.43	+1.45%	-10.84%	USD/CNH	7.07	-0.34%	-0.76%
S&P500	5,713.64	+1.7%	+19.79%	USD/JPY	142.63	+0.24%	+1.13%
NASDAQ	18,013.98	+2.51%	+20%	채권시장		가격	DTD(bp)
다우	42,025.19	+1.26%	+11.5%	국고채 3년	2.835	+1.5bp	-31bp
VIX	16.33	-10.42%	+31.16%	국고채 10년	2.969	+4.2bp	-20.6bp
러셀2000	2,252.71	+2.1%	+11.13%	미국 국채 2년	3.581	-3.6bp	-66.9bp
필라. 반도체	5,066.65	+4.27%	+21.34%	미국 국채 10년	3.713	+0.9bp	-16.6bp
다우 운송	16,331.72	+1.62%	+2.72%	미국 국채 30년	4.051	+3bp	+2.2bp
상해종합	2,736.02	+0.69%	-8.03%	독일 국채 10년	2.198	+0.8bp	+17.4bp
항셍 H	6,305.51	+2.1%	+9.31%	원자재 시장		가격	DTD(%)
인도 SENSEX	83,184.80	+0.29%	+15.15%	WTI	71.95	+1.47%	+1.37%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4.88	+1.67%
Eurostoxx50	4,943.38	+2.24%	+9.33%	금	2,614.60	+0.62%	+21.04%
MSCI 전세계 지수	839.49	+1.6%	+15.47%	은	31.09	+2.48%	+29.1%
MSCI DM 지수	3,689.52	+1.65%	+16.42%	구리	428.60	+1.13%	+10.17%
MSCI EM 지수	1,087.75	-0.25%	+6.25%	BDI	1,890.00	-0.58%	-9.74%
MSCI 한국 ETF	63.91	+1.03%	-2.47%	옥수수	405.75	-1.7%	-19.41%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65.50	-1.78%
비트코인	63,042.09	+4.67%	+48.31%	대두	1,013.25	-0.07%	-18.66%
이더리움	2,465.73	+6.01%	+8.04%	커피	261.65	-1.04%	+38.9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1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